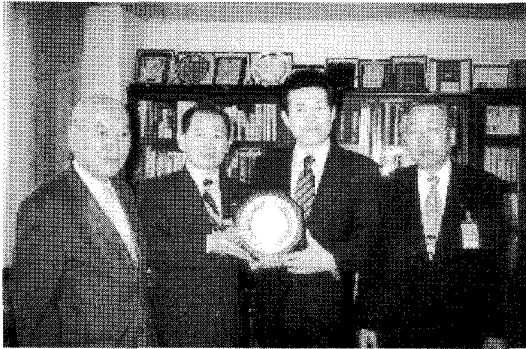


협회소식

축단협, 이용삼 의원 등에 감사패 전달

- 축산자조금법 입법 · 우리 축산물 학교급식 추진 앞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4월 3일 이용삼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군납 우유 증량과 학교급식에 돼지고기 수출부위 납품 등 축산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용삼 의원(민주당, 강원 화천·철원·양구군)은 “최근 양돈 등 축산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업은 나라의 기간산업이므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순은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이희준 새천년민주당 농림 수석전문위원, 박경정 자유민

주연합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에게도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자조금법) 입법을 위해 노력해 준 공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4월 1일부터 한달간 돈육 소비촉진 TV광고 방영

- 농림부, 본회 및 농협과 함께 홍보사업 적극 추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소비 감소 우려를 씻기 위해 TV광고 등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부는 3월24일 “돼지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돼지 조기출하 움직임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돼지고기 소비확대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본회와 농협 등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간 KBS, MBC, SBS 등 TV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 250회를 방영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고기 안전성에 관한 리플렛을 제작, 전국의 식육판매점과 대형할인매장 등에 배부해서 소비자들에게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본회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TV광고를 2개월 더 추가 방영해 줄 것을 농림부와 양돈수급안정위원회에 건의했었다.

돼지콜레라 관련 혐오장면 방영 및 보도 자제요청

- 축단협 김건태 회장 등 MBC 방송국 방문 강력 항의

본회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에서 돼지콜레라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돼지 매몰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등 돼지고기 소비위축을 초래함에 따라 MBC 등 방송 3사와 연합뉴스 등 일간지에 방영 및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국내 양돈농가는 지난 8개월 이상 생산가 이하로 하락한 돼지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농가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이 같은 양돈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돼지콜레라 조기 종식을 위해 만방으로 노력하는 양돈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양돈산업이 조속히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도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축단협 김건태 회장(본회 회장)과 회장단은 지난 4월 11일 MBC 방송국을 방문하여 돼지콜레라 관련 혐오장면 방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방영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김건태 회장, “돼지콜레라 청정화에 최선 다할 터”

-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서 밝혀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양돈업계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향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청정화를 이루겠다”

본회 김건태 회장은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월 10일 축산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건태 회장은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꼭 이루어야 할 양돈업계의 과제라 생각하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여 박멸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삼겹

살로 편중된 소비분화를 개선하는 등 돼지고기 대일 수출지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돼지고기 품질인증제 추진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 방역 및 위생수준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양돈업 등록제 조기 정착을 추진하는 등 양돈 산업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양돈원로들, “향후 양돈정책 결정 신중 기해야” 한 목소리



본회와 축산신문이 공동 주최한 ‘원로 양돈인 초청 간담회’가 지난 3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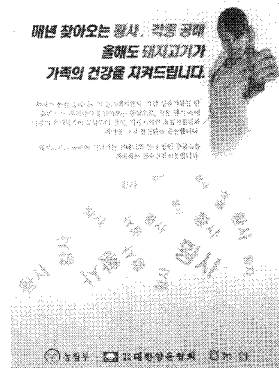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백 명예회장, 전동용 전 양돈협회장, 이명복·조옥봉 전 부회장, 김상호 대표(아라농장), 한백용 고문, 최재우 전 이사, 윤주성 이사, 김인식 천안지부장, 신태식 대표(고려축산), 정덕영 조합장(서울경기 양돈조합), 남대현 부회장((주)신진) 등 원로 12명과 본회 회장단,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김실중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원로 양돈인들은 “최근 돼지콜

레라 발생과 관련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후 재접종에 들어간 것은 양돈정책의 실패라며, 이는 양돈산업이 몇 년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양돈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원로 양돈인들은 축분처리 문제, 검정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소비안정 대책 등 양돈산업 전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돼지고기 소비홍보 전단지 10만매 배부

- 전국 식육판매점, 대형할인점, 유통업체 등 배부



본회는 3월 28일 돼지고기 소비홍보 전단지 10만매를 제작하여 전국 식육판매점, 대형할인점, 유통업체 등에 배부했다.

본회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조기 출하 움직임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농림부, 농협과 함께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키로 했다.

본회는 지부에서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락 행사시 홍보 전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보 전단지는 앞 뒤 양면

으로 '돼지고기로 체내의 중금속을 해독한다', '삶은 돼지고기 장수촌의 주메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 국내산 돼지고기 이용 계도 · 홍보 요청

- 농림부 · 교육인적자원부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신 보내

본회는 최근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3월 31일 농림부 장관을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문을 보내 국내산 돼지고기 이용 계도 ·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돼지콜레라는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밝히고, "양돈농가들이 작년 8월 이후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등 장기간 양돈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돼지콜레라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3월 22일 KBS 등 방송사와 일간지, 여 · 야당 국회의원 270명, 소비자단체 14곳 등에 서신을 보내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를 적극 계도 ·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관련 수입업체에 돈육 수입중단 강력 요청

- 효성마케팅, 농심 등 일반 수입업체 32곳에도 수입 자제 요청

본회는 3월 24일 CJ푸드시스템, 대한제당, 한국냉장, 대상농장, 농협무역, 롯데상사, 롯데햄롯데우유, 진주햄, 아이델리 등 국내 양돈

관련 9개 육류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돼지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전국 양돈농가들이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저돈가와 경기불황에 따른 돈육 소비량 감소로 인해 수개월간 적자 경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수입된 돈육은 7만1천여톤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고, 올 2월까지 수입된 돈육도 9,701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해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돼지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효성마케팅, 농심 등 32곳의 일반 육류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제당 · CJ푸드시스템, 돼지고기 수입 중단 · 자제키로

- 본회, 돈육수입 중단요청 회신에서 이같이 밝혀

국내 양돈관련 돼지고기 수입업체인 대한제당(주)(대표이사 이은구)과 CJ푸드시스템(주)(대표이사 김상후)이 본회의 돼지고기 수입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 · 자제하고, 수입물량을 국산돼지고기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국내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산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제당(주)은 4월 4일 본회로 보낸 회신에서 "국내 양돈농가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

기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이 심사 숙고하여 돈육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J푸드시스템(주)도 4월 8일 “최근 국내 돈가 하락 및 돼지콜레라의 발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하고, 현재 사용중인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전환하여 국내 양돈농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도축장 돼지고기 정상유통 협조 요청

본회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 지정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고기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통관련단체·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는 지난 3월 28일 농림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등 관련단체, 가야푸드 등 36개 1차, 2차 육가공업체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이동제한지역 지정도축장에 출하, 도축되는 돼지고기를 기존 유통, 육가공업체에서 구매를 기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HC 발생 관련 전국 농가에 돼지 출하물량 조절 요청

본회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의 지정도

축장 출하 및 이동제한 해제시 수급안정을 위해 출하물량을 조절해 줄 것을 전국 양돈농가에게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반경 10km이내)의 백신접종이 완료된 후 1주일이 경과하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지역 양돈농가의 출하가 집중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면 출하물량이 집중되어 돈가 폭락이 우려된다”며, “이동제한의 지역에서는 돈가 폭락 예방을 위하여 출하물량을 조절, 특히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돼지콜레라 ‘돈열병’으로 명칭 변경 요청

- 한국양돈수의사회 등 학회에도 명칭변경 협조 요청

본회는 지난 4일 농림부 장관과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장에 서신을 보내 돼지콜레라 명칭을 ‘돈열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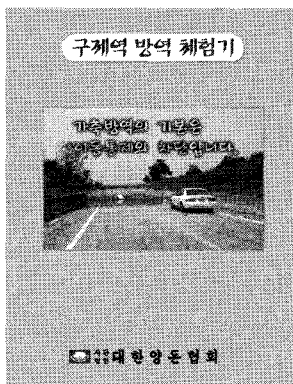
본회는 “최근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돼지콜레라와 사람 콜레라의 동일 명칭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돼지고기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돈육소비 확대를 통해 양돈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돼지콜레라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한국양돈수의사회, 동물자원과

학회 등 축산관련 학회에도 서신을 보내 명칭 변경 협조를 요청했다.

구제역 방역 체험기 책자 발간

- 간접 체험 통해 방역의식 고취



본회는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기도 안성에서 직접 살처분을 담당했던 축산담당 공무원의 구제역 방역 체험기를 책자로 발간했다.

본회는 이 책자를 본회 전국 지부(회) 회원들에게 배부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가가 겪는 어려움과 피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등 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발간했다.

제1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84만원

지난 4월 15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부(경기 이천) 제 22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84만7,054원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4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7두 등 총 140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129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95만8,298원(94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4만8,286원(35두)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천종돈(대표 양상렬) 듀록 수컷(선

발지수 267점) 최우수돈이 문경 FINE(대표 이경록) 슈퍼돈 등 4두의 슈퍼돈을 제치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갈산리 소재 한흥재(백원AI센타)씨에게 최고가 7백만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포천지부,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관철 결의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최근 대다수 농가의 희망사항인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관철을 위해 결의하고, 적극 이행키로 했다.

포천지부는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수용을 요구하고, 수용거부시 4월 1일~7일까지 1주일간 포천, 철원, 연천, 퇴계원, 동두천으로 모든 비육돈 출하를 중지키로 하는 등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서천지부장에 두혁중씨 선출



두혁중 서천지부장

충남 서천지부는 지난 4월 12일 지부사무실에서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두혁중(44)씨를 신임 서천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서천지부장으로 선출된 두혁중씨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에서 1,500두의 솔리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김영

우씨를 선출했다.

제천시부장에 김병화씨 선출



김병화 제천시부장

충북 제천시부는 지난 2월 20일 조합사무실에서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병화(49)씨를 신임 제천시부장으로 선출했다.

제천시부장으로 선출된 김병화씨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호리에서 모돈 120두 규모의 송왕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신해주, 박선규, 감사 권기호, 임병준, 운영위원 손병욱, 신병하, 정창현, 김진복, 원용주, 총무 김응보씨를 각각 선출했다.

해남지부, 가축 봉침 교육 실시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는 지난 3월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본회 회원과 낙우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침 교육'이

있었다.

한편 이날 박 지부장은 최근 전국적인 돼지 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양돈농가들이 더욱 힘내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마산지부 사무실 이전

마산지부(지부장 이용모)가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전주소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88-1번지 백양상가 2층

△전화번호 : (055)271-5225

△팩스번호 : (055)271-4759

연기지부 사무실 이전

연기지부(지부장 이성권)가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이전주소 : 충남 연기군 서면 외촌리 608번지 함박농장

△ 전화번호 : (041)862-7318, △ 팩스번호 (041)863-1992 **양돈**

본지 캠페인

샘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